

앤디 워홀의 <Time Capsule> 작업이 갖는 기록학적 특성과 가치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Andy Warhol's Archive,
<Time Capsule>

이혜린(Lee, Hye Rin)* · 박주석(Park, Ju Seok)**

1. 머리말
2. 앤디 워홀과 <Time Capsule>
3. 앤디 워홀의 기록 수집
 - 1) 기록의 수집 배경
 - 2) 기록의 수집 전략
3. <Time Capsule>의 기록학적 특성
 - 1) <Time Capsule>의 기술요소와 방법
 - 2) <Time Capsule>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4. 맺음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sunday9919@gmai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firstjason@mj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12월 30일 ■ 최초심사일 : 2018년 1월 4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1월 12일

〈초록〉

본 논문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작품 〈Time Capsule〉 시리즈를 통해 예술가의 개인기록 집적이 갖는 기록학적 특성과 가치에 관한 연구이다. 앤디 워홀의 〈Time Capsule〉은 개인의 일상기록인 동시에 예술작품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 연구할 가치가 높다. 앤디 워홀은 197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물건 대부분을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워홀은 개인적인 기록부터 물건 구매 영수증, 초대장, 메모, 편지,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신문, 잡지, 팬레터, 우편물, 전시 도록 등을 상자에 넣었고, 시간이 지나면 테이프로 봉인한 뒤 날짜를 표기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앤디 워홀의 수집 행위는 작가의 삶을 관통해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 때로는 기록 생산자로서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이나 구입한 책의 목록, 관람한 영화 등 일상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행위를 끊임없이 기록하였고, 때로는 아키비스트의 자세로 타인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앤디 워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행위와 정보도 특별히 여겨 자신은 물론 주변을 기록하는 데 집착하고 애정을 드러내었다.

앤디 워홀이 의도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은 작가 개인뿐 아니라 주변인, 나아가 사회 전반을 파악하는 정보를 지니기에 매우 중요한 정보적, 증거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치를 지닌 기록물은 다층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 기록의 행위와 결과가 기록이라는 결과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작품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앤디 워홀, 타임캡슐, 기록정보, 예술가의 기록, 문화자원, 기록 가치

〈Abstract〉

Andy Warhol's "Time Capsule" is an individual's daily record, but it can also be evaluated as an artwork. Andy Warhol kept most of his items in boxes until his death in 1974. Warhol's personal records contained receipts, invitations, memos, letters, voice tapes, newspapers, magazines, fan letters, mails, and exhibit materials.

Andy Warhol's act of collecting items was continuous and repetitive, giving others a deeper insight into the artist's life. Warhol constantly recorded daily repetitive behaviors such as the people he met, a list of books he bought, and movies he had watched as a record producer. In addition, occasionally, he was in the position of an archivist, collecting and organizing others' records. As such, he expressed his passion for recording his surroundings. His intentionally produced or collected records contain valuable information, not only of himself but also of the people surrounding him. His personal records show that it is the material that enables peopl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his relationship with contemporary artists, as well as the artist's education and the conditions during his time.

Keywords : Andy Warhol, Time Capsule, Cultural Resources, The Records and Archives in Visual Arts

1. 머리말

미술기록은 예술과 관련된 각종 사건과 사실, 예술가와 주변인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제외한 스케치, 출판물, 사진, 메모, 서신, 영상, 스크랩, 재정기록, 증명서 등이 해당한다. 미술기록의 생산 주체는 크게 개인과 단체로 나눌 수 있고, 특히 개인의 영역에서는 예술가를

포함해 가족, 지인, 연구자, 큐레이터, 컬렉터 등 여러 출처로부터 다양한 기록들이 생산되고 수집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술기록의 생산자 중 예술가의 의도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앤디 워홀이 자신과 관련한 기록을 생산하거나 수집한 〈Time Capsule〉¹⁾이다.

앤디 워홀의 괴상한 버릇 혹은 강박으로 인식되었던 〈Time Capsule〉은 예술가가 의도적으로 수집한 개인 기록물이다. 예술가의 기록은 작품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할 당시의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는 개인의 역사로 평가할 수도 있다. 예술가 한 사람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은 한 명의 개인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더불어 기록을 통해 작품의 초기 아이디어부터 발표되지 않은 작품, 주변 예술가와의 관계, 당시 시대 상황 등을 연구하기에 유용하므로 기록학적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앤디 워홀의 작품 〈Time Capsule〉 시리즈의 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가가 개인의 물건을 수집하거나 일상을 기록하는 행위가 기록학적 관점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기록이 예술로 인정받는 사례를 통해 기록이 기록 자체로만 인식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품으로만 평가받는 예술가의 작품이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통해 기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 앤디 워홀과 〈Time Capsule〉

앤디 워홀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노동자의 아들로 태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앤디 워홀의 'Time Capsule'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이나 물건을 담아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앤디 워홀의 작업명을 의미한다.

어났다. 작가의 출생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출생일이 출판물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앤디 워홀도 1930년이라고 기록된 자신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설중에서 1928년에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게 통용되고 있다(클라우스 호네프 2006, 7).

앤디 워홀의 본명은 앤드류 워홀라(Andrew Warhola)이다. 앤디 워홀이라는 이름은 1949년 뉴욕으로 이사한 후에 지은 것이다. 앤디 워홀은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인스티튜트에 입학하여 회화와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뉴욕에 정착하며 『VOGUE』와 『Harper's Bazaar』 등에서 상업디자이너로 일하였다. 앤디 워홀이 활동하던 당시 뉴욕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걸출한 작가들이 몰려와 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었고, 상업디자이너로 성공을 거둔 앤디 워홀도 순수 예술가로 변신하고자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워홀은 1962년 캠벨 수프 캔을 주제로 전시를 열며 작가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다.

앤디 워홀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앤디 워홀이 상업디자이너로 시작해서 미국적인 미술의 대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 미술계에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워홀에 대한 기존의 미술비평가와 문화이론가의 서로 다른 평가가 현대미술에 대한 예리한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올리는 성과(김언정 2009, 331-332)를 거둔 점은 분명하다.

실크 스크린 작업은 앤디 워홀이 선보인 대표적인 기법이다. 작가는 작품의 주제에서부터 제작방식, 소재의 활용 등 모든 것을 대중문화에서 차용함으로써,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이미지들을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방법으로 제조하였다(오주환 외 2014, 145)는 평가를 받는다. 앤디 워홀의 실체와 유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삶과 작업을 아우르는 존재의 유산은 흔히 '워홀 효과(Warhol effect)'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는 사후에도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그의 후광과 존재감이

지속하는 현상으로, 사후에 열리는 옥션이 마치 마지막 작품처럼 주목받고 죽음이 그 작가적 명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가리킨다(강태희 2009a, 154-155).

미술사적인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현대미술의 아이콘인 앤디 워홀이 일생을 걸쳐 중요시한 것 중 하나는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일이었다. 앤디 워홀의 기록 집합체인 〈Time Capsule〉은 앤디 워홀 미술관의 소장품 중 하나로, 569개의 상자과 캐비닛 서랍 40개, 대형 트렁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앤디 워홀은 1974년부터 자신의 물건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지만, 〈Time Capsule〉 속 아이탬들은 대부분 1950년대부터 1987년까지 생산된 것들이다. 이는 앤디 워홀의 주요 활동시기와 맞물려 그의 흔적을 되짚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Andy Warhol 〈Time Capsule〉



앤디 워홀은 197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일상에서 생산하고 수집한 파편들을 보관하였다. 특정 기준이나 체계로 물건을 분류한 것이 아닌, 책상 옆에 빈 상자를 두고 그의 손을 거친 기록 대부분을 넣어 테이프로 봉

한 뒤 쌓아두었다. 여기에는 워홀 본인의 사진부터 물건 구매 영수증, 초대장, 메모, 편지,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신문, 잡지, 개인 서류, 팬레터, 전 시도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약 13년간 앤디 워홀이 생산한 상자는 600여 개가 넘고, 앤디 워홀이 모은 기록 약 300,000여 점이 현재에도 아무런 유실 없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²⁾

3. 앤디 워홀의 기록 수집

1) 기록의 수집 배경

앤디 워홀은 동일한 크기의 갈색 상자에 그의 주변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건을 담았고, 물건으로 채워진 상자에 날짜를 표기해 뉴저지에 있는 창고로 보내기를 반복하였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워홀은 사용하던 팩토리(The Factory)³⁾의 이사를 준비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일상 행위가 앤디 워홀에게 거대한 프로젝트이자 작품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워홀은 자신의 책상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값싼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이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다루는 방법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John W. Smith 2003, 11). 그렇게 워홀은 새로운 작업실에 정착해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를 지나친 수많은 물건을 저장하기 시작했다(John W. Smith 2001, 8). 이러한 워홀의 행위에 대해 팻 해켓(Pat Hackett)⁴⁾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 2) 앤디 워홀 재단이 1994년 앤디 워홀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타임캡슐은 미술관으로 이전되면서 그 규모와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 3) 앤디 워홀은 그의 작업실을 '팩토리'라 불렀다.
 - 4) 팻 해켓은 앤디 워홀의 친구이자 편집자였다. 해켓은 1968년 워홀을 처음 만나 팩토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워홀과 『The Philosophy of Andy Warhol』, 『Popism』, 『Andy Warhol's Party book』 등을 공동 저술하였다.

“그는 매일 오는 수많은 우편물을 훑어보면서 편지, 초대장, 선물, 그리고 잡지들을 어떤 〈타임캡슐〉에 넣을 것인지 결정했다. 여기서 타임캡슐이란 25×45×35cm 크기의 갈색 상자 수백 개를 말하는데, 그 타임캡슐은 시간이 지나면 봉인되어 날짜를 기록한 다음 보관되었다. 그가 물건들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누구에게 주는 일은 정말 드물었다.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전부 상자로 들어갔다. 그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상자로 들어간 셈인데, 앤디는 사실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으므로 모든 것이 상자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앤디 워홀 2009, 18).”

〈Time Capsule〉 작업의 발단이 된 것은 팩토리 이전이었으나, 앤디 워홀의 수집 행위와 이를 지령하는 수집 열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앤디 워홀은 유명 예술가라는 명성만큼이나 열정적인 수집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집에는 20년 동안 중고품 가게와 옥션 등에서 구입한 현대 미술 작품과 가구, 보석, 골동품 등이 넘쳐났다(John W. Smith 2001, 8). 수집에 대한 그의 열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공작부터 시작해 얼룩무늬 사냥개, 펭귄, 사슴, 사자 등의 박제를 모았고, 인디언들의 물건과 보석, 파라마운트 영화사 명판 등의 물건까지도 구입하기 시작했다(매트 위비컨 2011, 112).

이처럼 워홀이 수집하고자 했던 품목은 굉장히 광범위했으며, 개인의 기호를 넘어 때로는 기괴한 취미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러한 수집벽이 원인으로 그가 앓던 저장강박장애(hoarder)를 들기도 하는데, 4층짜리 타운하우스에서 워홀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 겨우 주방과 침실 하나였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수집과 저장에 집착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해석이 존재하지만, 앤디 워홀의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분명한 점은 앤디 워홀이 무엇인가를 수집하고, 저장하는데 남들과는 차별되는 탁월함을 보였다는 점이다.

엄청난 수집가였던 앤디 워홀 연구에서 〈Time Capsule〉은 중요한 전환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이야기, 귀중품, 희귀품을 수집하는 데 집착하였다면, <Time Capsule>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타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상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대상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앤디 워홀의 관심이 값지고 보통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운, 종종 사치품이라 비난받던 물건에서 평범하고 사소한, 그리고 앤디 워홀 자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옮겨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지탱하는 일상에 대한 탁월한 관심은 앤디 워홀의 아카이빙 대상과 방법론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한 아카이브 전략(archival strategies)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Gabriella Giannachi 2016, 138)고 평가할 수 있다.

2) 기록의 수집 전략

앤디 워홀은 여러 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고집스러운 기록자의 모습을 드러내 왔다. 예를 들어 팻 해켓에게 팩토리를 방문했던 이들의 이름을 적게 하고, 앤디 워홀이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하였다. 팻 해켓은 앤디 워홀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동행해 참석자들에게 행사에 참여하는 소감이나 근황 등을 묻고 이를 문자화하였다. 그가 작성한 리스트의 목적은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참석했으며, 앤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 등에 대한 것이었다.

팻 해켓은 앤디 워홀의 일상기록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일 아침 앤디 워홀과 통화하며, 워홀이 전날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꼼꼼히 정리하였다. 이런 앤디 워홀의 일상이 『앤디 워홀 일기(The Andy Warhol's Diaries)』⁵⁾로 출간되었다. 일기의 내용에는 앤디 워홀이 누구를 만

5) 1976년 11월 24일부터 시작해 워홀이 병원에 실려 가기 직전인 1987년 2월 17일까지의 일기 중 앤디 워홀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일기를 엮은 것으로, 해당 일기는 <Time Capsule>을 진행한 기간과 겹쳐서 기록되었다.

났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등의 감정적인 내용부터 택시비와 식대를 포함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일기의 내용 중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앤디 워홀이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를 기록하게 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 1977년 1월 14일 금요일 (호텔에서) 가방 들어 준데 대한 팁 \$5
- 1977년 1월 16일 일요일 닉 카터의 미스터리 소설책을 한 권 샀다(\$4)
빅터에게 줄 옷을 하나 샀다(모자 \$4, 옷 \$26)
- 1982년 11월 19일 금요일 택시비 \$3, 전화비 \$0.40
- 1986년 1월 3일 금요일 폴의 <믹스드 블러드>가 밤에 웨이벌리 플레이스 극장에서 상영되어 보러 갔다.(티켓 \$10, 팝콘 \$5)

어느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의 기록이 당시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었기에, 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록의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훗날 앤디 워홀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워홀은 1950년대 중반, 자신이 선물한 테이프 녹음기를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에 영향을 받아 1965년에 최첨단의 휴대용 카세트 녹음기를 구입해 팩토리외 그 밖의 장소에서 일상의 사건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작업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3천 개의 테이프를 남겼다. 이들 중 일부가 훗날 연극 <포크>(1971)와 워홀이 창간한 잡지 『Interview』에 실렸다. 테이프 대부분은 워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워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만든 것이다. 녹음에는 특히 친구와 통화한 내용이 많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험담, 누군가가 들려주는 일화, 거짓말에 속은 이야기, 노래하거나 농담하는 장면, 그 밖의 수없이 많은 해프닝들을 담아 워홀은 ‘홀륭한 테이프’로 만들었다(매트 위비컨 2011, 64).

이처럼 앤디 워홀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수집하였다. 앤디 워홀의 수집 욕구는 다양한 형태와 주제, 그리고 결과물을 선보였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과 주변에 대해 잇따라 기록하고 수집한 결과물인 〈Time Capsule〉이다.

“지금은 물건들을 같은 크기의 갈색 판지 상자에 그냥 던져 버린다. 그 상자 옆구리에는 연중의 어느 달이라고 쓴 컬러 패치가 붙어 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향수를 느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이다. 물건들이 나에게 온 것처럼 나는 물건들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싶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에 ‘고마워’라고 말한 뒤 그달의 상자 안에 던진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물건들을 보관하고 싶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쓰게 되기를 바란다(앤디 워홀 2007, 167).”

앤디 워홀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고 싶은 혹은 버리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물건들은 워홀이 던진 상태 그대로 보관되었고, 어쩌면 저장강박을 앓고 있던 워홀에게는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책을 사거나, 택시를 타는, 전시 초대장을 받는 일련의 평범한 행위는 일상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일어난다. 하지만 워홀은 이런 사소한 행위도 쉽게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앤디 워홀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반복되는 일상도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워홀은 자신의 일상을 때로는 일기로, 때로는 흡사 작품의 형식으로, 그리고 녹음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워홀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행위가 그에게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였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그의 ‘보관’이나 ‘수집’ 행위가 앤디 워홀이 기록 생산자 혹은 수집가로서 탁월한 면모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주제와 방

법을 떠나 이러한 총체적 결과물은 앤디 워홀이 자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두었고, 이를 기록하는 일에 애정이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Time Capsule 21〉의 기록학적 특성

1) 〈Time Capsule〉의 기술요소와 방법

610개의 〈Time Capsule〉⁶⁾을 정리하는 카탈로깅 프로젝트는 약 6년간 진행되었다⁷⁾. 하나의 상자에는 약 400~500개의 아이템이 들어있고, 총 아이템은 300,000여 개에 달한다. 상자 하나의 정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봉인되었던 상자를 개봉하여 보존처리가 필요한 아이템을 평가한다. 성격이나 재료가 비슷한 아이템끼리 시리즈, 필요에 따라 서브시리즈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연대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정렬시킨다. 그 후 각각의 아이템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물 기술 표준인 DACS(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에 따라 기록물의 내용을 기술한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에도 정보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상자에 있던 각각의 아이템은 폴더 혹은 적절한 보존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Marie Elia 2014). 다음 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키비스트들이 〈Time Capsule〉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Time Capsule 370〉의 검색도구이다.

6) 앤디 워홀의 〈Time Capsule〉은 〈TC〉라고도 불리는데, 본 논문에서는 〈Time Capsule〉은 컬렉션 전체나 하나의 완성된 상자를, 〈TC〉는 상자 속 하나의 아이템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하겠다.

7) 앤디 워홀 시각예술재단(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은 〈Time Capsule〉 시리즈를 재단 예산과 소규모로 지원받은 보조금(\$ 600,000)으로 약 6년간 아키비스트들을 고용해서 카탈로깅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정리했다.

〈표 1〉 〈Time Capsule 370〉의 검색도구

기술 개요
제목 : TC370 보존소 : 앤디 워홀 미술관, 117 샌더스키 스트리트, 피츠버그, PA 15212 일시 : 1980-1986, 주요 생산 시기: 1984-1986 크기 : 1개 상자, 10x18x17인치, 110개 아이템 기술담당자 : TC 프로젝트 인턴 리즈 카링골라(Liz Caringola) 생산자 : 워홀, 앤디, 1928-1987
정리개요
<Time Capsule 370>은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11개의 시리즈와 서브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다. 시리즈에는 작품, 서적, 비즈니스/재무 기록, 서신, 클리핑, 일기, 장비/도구, 전시 안내문, 초대장, 사진, 인쇄물, 연속 간행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의 언급이 없어, 컬렉션의 정리는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따른다.
행정적 정보
소장이력 : 앤디 워홀 시각예술 재단에서 앤디 워홀 미술관으로 기증 이용환경 :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앤디 워홀 미술관에 문의 저작권 : 저작권 관련 사항은 앤디 워홀 미술관에 문의 크레딧 라인 : The Andy Warhol Museum, Pittsburgh; Founding Collection, Contribution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개인이력/ 행정연혁
앤디 워홀에 대한 일반적인 개인이력은 미술관에 문의
범위와 내용
<Time Capsule 370>은 주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특히 1983년 8월에 생산된 앤디 워홀의 비즈니스와 개인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포함하고 있다. <Time Capsule 370>에 속한 자료들은 종이, 사진, 금속, 플라스틱, 유리, 섬유 등의 매체로 생산되었다. 흥미로운 아이템으로는 전시도록 및 1983년 3월 11일부터 열린 전시 <The Spirit of Art Nouveau, Alphonse Mucha>를 홍보하는 다양한 종이 자료, 미국 배우 수잔 서랜던 (Susan Sarandon)이 커버를 장식한 1983년 6월 『Interview』지, 그리고 앤디 워홀이 쓴 3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이다.
접근과 언어
색인어 : 워홀, 앤디, 1928-1987 무하, 알폰스, 1860-1939 서랜던, 수잔, 1946- 언어 : 자료 대부분은 영어로 쓰여 있고, 자료 중 일부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로 기록되어있다.
추가 주기
관련자료 주기 : TC370.39.1 - TC.370.39.4.2는 TC339의 아이템 중 하나인 바르슈타 이너(Warsteiner beer) ⁸⁾ 와 관련된 아이템이다.

검색도구란 “소장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한국기록학회 2008, 19)”로, 관리자가 기록의 내용을 정리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앤디 워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기술 요소는 제목, 보존소, 일시, 크기, 기술담당자, 생산자, 정리개요, 소장이력, 이용환경, 저작권, 크레딧 라인, 범위와 내용, 색인어, 언어, 관련 자료 등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Time Capsule>의 정리방법과 규칙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검색 도구를 참고하면 <Time Capsule> 카탈로깅 팀은 각각의 상자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설정하고, 성격이 유사한 자료를 시리즈로 묶어 계층을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칙으로 분류된 <Time Capsule 370>의 시리즈는 ‘작품’, ‘비즈니스/재무 기록’, ‘서적’, ‘서신’, ‘단명 자료’, ‘장비/도구’, ‘전시안내문’, ‘초대장’, ‘매뉴스크립트’, ‘인쇄물’, ‘연속간행물’ 등 11개이다. 다음은 <Time Capsule 370>의 컨테이너 리스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Time Capsule 370>의 컨테이너 리스트 중 일부

	컨테이너명	폴더 번호	아이템 식별번호
컨테이너 리스트	비즈니스/재무 기록	[폴더 2]	TC370.7.1 - TC370.22.3
	초대장	[폴더 8]	TC370.43.1 - TC370.45
	인쇄물	[폴더 10]	TC370.48.1.1 - TC370.82
	인쇄물	[폴더 11]	TC370.83 - TC370.87
	인쇄물	[폴더 12]	TC370.88
	연속간행물	[폴더 17]	TC370.102 - TC370.106
	연속간행물	[폴더 18] 및 별도보관	TC370.107.1 - TC370.109.2
	타임캡슐 상자		TC370.110

<표 2>를 보면 ‘비즈니스/재무 기록’이나 ‘초대장’처럼 하나의 폴더에 여러 아
이템을 정리한 경우도 있으나 ‘인쇄물’이나 ‘연속간행물’처럼 여러 폴더에 나눠

8) 1984년 앤디 워홀이 바르슈타이너 튜립 글라스에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주었던 것을 계기로, 바르슈타이너 아트 컬렉션이 시작되었고, 매년 경연을 통해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여 후원하고 있다.

분류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쇄물’이라는 동일한 매체 특징을 지닌 자료더라도, ‘엽서’, ‘포스터’, ‘보도자료’ 등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고, 각각의 아이템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 하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Time Capsule〉은 개인기록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 동시에, 작품의 소재가 되는 원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한 성격을 지닌 기록물 군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물과 작품이라는 중층적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카탈로깅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키비스트들은 기록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가에 대해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로서 앤디 워홀을 기술할 때 각각의 아이템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직업을 달리 작성한 것이 흥미롭다. 가령, ‘타임캡슐 상자’ 아이템의 생산자는 ‘앤디 워홀, 편집자’라 기술하고, ‘사진류’ 아이템의 생산자는 ‘앤디 워홀, 작가’로, ‘삽화’나 ‘프린트’ 아이템의 생산자는 ‘앤디 워홀,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앤디 워홀’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킴에도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생산자의 성격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록물 정리의 다른 특징으로는 동일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Time Capsule〉에는 수많은 동일 자료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하나의 아이টে으로 간주하되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Time Capsule〉 21번 상자의 94번째 아이টে은 동일한 엽서 다섯 장을 가리키는데, 이를 묶어 ‘TC.21.94’라는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의 엽서에는 ‘TC.21.94.1’부터 ‘TC.21.94.5’라는 개별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봉투와 편지같이 생산될 당시부터 하나의 그룹을 이루거나 맥락적으로 함께 보존되어야 할 자료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료의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료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Time Capsule〉에 보관된 아이টে들도 각각의 상태를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다. 기록물의 상태는 크게 ‘Excellent’와 ‘Good’, ‘Fair’, ‘Poor’, ‘unstable’로 나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Good to fair’나 ‘Fair to poor’ 등으로 한 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보통 기록물의 1차적인 상태평가가 끝나면 각각의 아이템에서 확인되는 황변, 찢김, 주름, 마스킹 테이프 흔적, 오염, 접힌 상태 등 의 상태를 기술⁹⁾하여 보존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ime Capsule〉 아이템에 대한 카달로깅 작업을 마친 후 대중에게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돈 버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했던 워홀의 신념을 계승하듯 앤디 워홀 미술관은 〈Out of the Box: Time Capsule Opening In Pittsburgh〉라는 이벤트를 열어 〈Time Capsule〉 개봉 행사를 여러 차례 열었다. 워홀의 열성 팬들은 그가 어떤 물건을 남겼는지를 보고자 기꺼이 10달러를 지불하고 그 순간을 함께 하였다. 행사에서는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들이 카달로깅 과정과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고, 종종 과거 앤디 워홀의 조수였던 벤자민 리우(Benjamin Liu)가 참석해 앤디 워홀과 관련한 일화를 들려 주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앤디 워홀 미술관에서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블로그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Time Capsule〉의 내용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앤디 워홀은 사후에도 여전히 그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그가 창조해낸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지속시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2) 〈Time Capsule〉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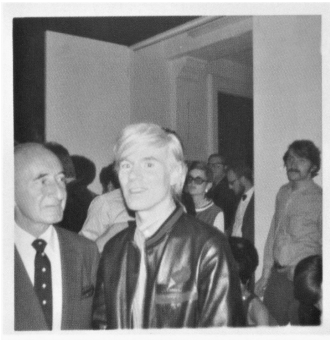
기록학에서는 기록이 생산될 당시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지속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기록은 참조와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와 기록물의 역사성이나 역사적인 상관관계, 미적·예술적 가치 등을 의미하는 내재적 가치(이상민 2001, 105)라는 2차적 가치를

9) 기록의 보존상태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상태평가 지침』(NAK/A 2:2006(v1.0))에서 기록물의 상태평가를 크게 4개 등급(무·약·중·강)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훼손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물리적 훼손’, ‘생물학적 훼손’, ‘화학적 훼손’이 있으면 하위에 ‘파손’, ‘건조화’, ‘화재흔적’, ‘재질오염’, ‘산성화’, ‘잉크 탈색’ 등 15개 항목에 대한 상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앤디 워홀의 〈Time Capsule〉은 정보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재적 가치 가운데 예술적 가치를 지녀 예술품으로 인정받으며 앤디 워홀이라는 역사적인 인물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구 대상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앤디 워홀의 〈Time Capsule〉은 대표적인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일기류의 자유롭고 주관적인 형식보다는 신문, 사진, 스크랩, 서신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기록 방식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관에서 탈피하여 기록 대상의 행위를 객관화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록이자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Time Capsule〉에 보관된 기록들은 앤디 워홀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가령, 〈Time Capsule 21〉에는 1928년 『Harper's Bazaar magazine』 6월호에 발간된 아이 밀러 슈즈(I. miller Shoes)의 광고부터 1954년 CBS 라디오로부터 받은 청구서, 1972년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Leo Castelli Gallery)에서 열린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의 개인전 〈Made in Tampa〉의 엽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TC.21.3.3



〈그림 3〉 C.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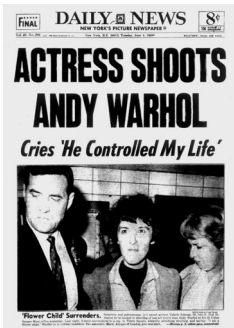


많은 기록 중에는 앤디 워홀 자신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림 2〉와 〈그림

3)이 바로 그것이다. <TC.21.3.3>은 1969년에 촬영되었다고 추정되는 파티에서의 앤디 워홀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TC.21.26>은 1960년대 경, 에드워드 월로위치(Edward Wallowitch)가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 앤디 워홀의 사진이다. 당시 앤디 워홀은 월로위치와 사진 촬영을 많이 진행하였고, 현재에도 그가 찍은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사진뿐 아니라 <Time Capsule>에는 워홀의 삶에 중요한 순간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증명한 기록들이 여럿 존재한다. 그가 1965년경 사용하던 여권 사본을 비롯해 자신에게 충격을 가한 사건의 뉴스까지도 스크랩되어 있다.

<그림 4>의 『New York Daily News』는 1968년 6월 4일 발행된 신문으로, 앤디 워홀에 대한 기사가 1면을 장식했다. 헤드라인 제목은 “Actress shoots Andy Warhol”, 부제는 “Cries ‘He Controlled My Life’”(서울시립미술관 2009, 132-133)로 <Time Capsule>에 보관된 기록 중 하나이다. 1968년 6월 3일, 수많은 워홀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던 발레리 솔라나스(Valerie Jean Solanas)가 팩토리에 있던 워홀과 기자 한 명을 저격하였다. 워홀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솔라나스는 곧 자수했다. 경찰이 그녀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그녀는 “그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솔라나스는 평소에 자신의 연극을 제작해달라고 워홀을 귀찮게 했고 워홀은 계속 피해오기만 했다고 밝혀졌다(리처드 폴스키 2006, 25).

<그림 4> Daily News



<그림 5> TC2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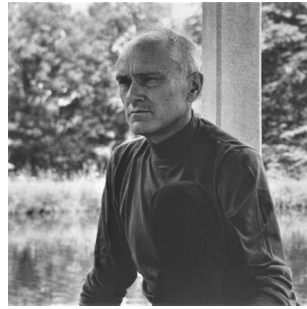


〈Time Capsule〉에는 앤디 워홀에 대한 기록 외에도 가족,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록과 당대 유명인과 관련된 기록,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작품의 아이디어이자 원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림 6〉은 앤디 워홀의 작품인 미국의 건축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을 주제로 한 작품이고, 〈그림 7〉은 작품의 원자료로 추정되는 필립 존슨의 사진으로, 〈Time Capsule 21〉에 보관되어 있어 사진과 작품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이외에도 워홀의 작품 〈Do it Yourself: Violin〉(TC21.16)과 〈Campbell's Soup Cans〉(TC21.19.1-TC21.19.5)를 완성할 때 활용했거나 스케치로 사용되었을 원자료들도 〈Time Capsule〉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6〉 〈Philip Johnson〉



〈그림 7〉 TC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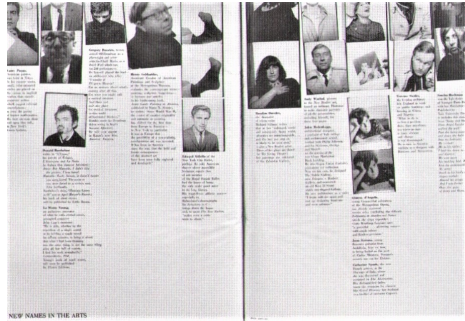
〈Time Capsule〉에는 원자료뿐 아니라 작품 사진도 찾을 수 있다. 바로 잡지 『Harper's Bazaar』 1963년 6월호에 게재된 “New Faces, New Forces, new Names in the Arts” 기사에 실린 앤디 워홀의 사진 작업이다. 해당 작업을 위해 촬영한 프랑스 영화배우 캐서린 스파크(Catherine Spaak), 화가 로잘린 드렉슬러(Roslyn Drexler), 시인 산드라 호크만(Sandra Hochman), 작가 그레고리 로자키스(Gregory Rozakis), 미국의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에드워드 빌렐라(Edward Villella), 큐레이터 헨리 게르트잘러(Henry Geldzahler),

작가 도널드 바셀미(Donald Barthelme), 오페라 가수 지안나 단젤로(Gianna d'Angelo) 등의 사진이 〈Time Capsule〉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8〉
TC.21.73.113-115



〈그림 9〉 New Faces, New Forces,
New Names in the Arts Harper's Bazaar



이외에도 〈Time Capsule〉에는 전시 관련 엽서와 포스터,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명함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 자료 중에는 워홀의 첫 사운드 영화로 기록되는 〈Harlot〉의 원고 일부와 작가들의 단편원고도 함께 보관되어 있어 여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앤디 워홀의 기록은 자신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이나 작가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Time Capsule〉은 앤디 워홀의 개인 기록이자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례로서 연구 대상이 되는 물리적 형태를 가졌기에 문화사적인 차원의 실물가치를 지닌다. 기록물이 갖고 있는 내용은 정보적·증거적 가치를 지닌다. 앤디 워홀이 여러 발신처로부터 받은 우편물이나 신문 스크랩을 통해 당시 워홀이 남긴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인터뷰나 관련 비평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워홀이 선택하고 보관한 〈Time

Capsule)의 물건들을 통해 워홀 연구뿐 아니라 당대 미국 문화에 대한 해석까지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가치까지도 살필 수 있다.

4. 맺음말

한 명의 예술가가 자신을 둘러싼 거의 모든 물건을 아무런 유실 없이 온전히 보관했다는 점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물론 앤디 워홀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물건을 간직하거나 버리는 행위 사이에서 매우 고민하였지만, 앞으로 다시 사용하리라는 기대, 계속 갖고 있고자 하는 욕구, 버릴 수 없는 미련 등을 이유로 수집 행위를 계속하였다.

앤디 워홀에게 <Time Capsule>은 단순히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고 집적한 결과물이 아니었다. 워홀의 일기 중 “나는 타임캡슐을 통해 모든 걸 다시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젠 마치 내가 필름 일부분을 찾은 다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과 똑같다(앤디 워홀 2009, 625)”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앤디 워홀은 <Time Capsule>을 자신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내는 수단이자, 앤디 워홀 곧 그 자체라고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여러 문헌에서는 앤디 워홀이 당시 유명인이었던 자신의 아카이빙 행위가 곧 예술 그 자체이며, 차후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86년 9월 30일에 기록된 워홀의 일기에는 “타임캡슐 상자를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 재미있는 것들이다.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다. 언젠가는 그것들을 하나에 4천 달러에서 5천 달러에 팔 것이다. 옛날에는 1백 달러에 팔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앤디 워홀 2009, 818)”라는 기록이 있다. 또 매트 위비컨의 글에는 “앤디 워홀이 내용물을 공개하지 않은 각각의 상자를 모두 같은 가격에 팔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워홀은 상자를 사들인 이

들이 자신이 소장하게 될 상자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Matt Wrbcian 2007)”라고 언급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앤디 워홀이 〈Time Capsule〉을 대했던 방식이나, 감정 등을 잘 보여준다.

〈Time Capsule〉의 공개를 기점으로 앤디 워홀 연구자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평소 종이 한 장도 함부로 버리지 않던 워홀이 살아가면서 쌓은 모든 종류의 폐품들, 즉 초대장이나 극장표, 메모지, 선전 전단지 속에는 간혹 미술사적인 보물들이 섞여 있기도 했고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발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서울시립미술관 2009, 30). 물론 그동안 앤디 워홀과 관련 수많은 전시를 통해 작가를 앤디 워홀의 삶과 작업은 현미경적으로 조명 받아 왔지만, 워홀 연구의 큰 변화의 계기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그 결과로 공개된 〈Time Capsule〉라고 할 수 있다. 잡동사니를 포함한 이 삶의 흔적들은 워홀 연구의 새 지평이 되었다(강태희 2009b, 336).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앤디 워홀의 작품과 생애사와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며,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작품 스케치 혹은 자료들을 통해 후속 연구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앤디 워홀은 타인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없는 물건임에도 자신의 관심 분야이거나 호기심을 느끼는 대상이라면 끊임없이 수집하고 집적하였다. 이러한 기록들과 물건들은 워홀 개인의 관심사뿐 아니라 그의 행적과 인간관계를 유추하고 시선과 의식을 발견하는 매개체이자, 앤디 워홀의 작품 및 생애사 연구의 원 기록물인 동시에 당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예술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앤디 워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예술가는 작품 이외에도 삶과 맞닿아 있는 영역에서 기록을 생산할 수 있다. 예술가가 남긴 기록은 단순히 기록 그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유일본인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여러 가치를 인정받아 전시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한 명의 작가가 주변에서 생겨나는 모든 기록은 버리지 않고, 집적하였을 때 이는 곧

작가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또 그 기록들은 예술가의 작품을 비롯한 작가의 생애와 영향력, 관심분야, 주변인과의 관계, 사회적 시대상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사례 연구는 기록 수집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서 영향력을 갖출 수 있고, 기록을 남기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기록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나아가 한 명의 예술가가 남긴 기록의 문화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기록방법이 정립, 보급되어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태희. 2009. 앤디 워홀과 대중문화. 『현대미술사연구』, 25.
- 강태희. 2009. 앤디 워홀의 프론티어 : '좋은놈, 나쁜놈, 무심한놈'. 『현대미술사연구』, 26.
- 김연정. 2009. 앤디 워홀과 대중주의. 『동아시아문화와예술』, 5.
- 리처드 폴스키. 2006. 『앤디워홀 손안에 넣기』. 마음산책.
- 매트 위비컨. 2011. 『Andy Warhol Time Capsule』. 미술문화.
- 서울시립미술관. 2009.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 서울시립미술관.
- 앤디 워홀. 2007. 『앤디 워홀의 철학』. 미메시스.
- 앤디 워홀. 2009. 『앤디 워홀 일기』. 미메시스.
- 오주환, 최은수. 2014. 앤디워홀의 혼합매체를 통한 대중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42.
- 이상민. 2001. 영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14.
- 클라우스 호네프. 2006. 『앤디 워홀』. 마로니에북스.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 Gabriella Giannachi. 2016. 『Archive Everything: Mapping the Everyday』, MIT Press Ltd.
- John W. Smith. 2001. Saving Time : Andy Warhol's Time Capsules. 『Art Documentation: Journal of the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20.
- John W. Smith. 2003. ANDY WARHOL'S TIME CAPSULE. 『Andy Warhol's Time Capsule 21』

Marie Elia, 2014, Session 6: Back to Basics: Cataloging Work flows and Solutions
[Brochure], The Visual Resources Association,
Matt Wrban, 2007, Warhol's hoard a treasure trove, 『The Sydney Morning Herald』.